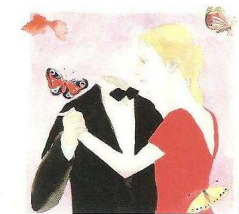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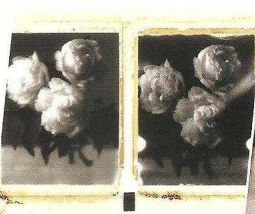
샌디 스코그룬드 개인전

방 안에서는 금붕어가 자유롭게 떠다니다고 예민한 어린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고립된 황무지에서는 비와 땅꾼이 내린다.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다면, 샌디 스코그룬드(Sandy Skoglund)는 그림 같은 사진을 찍는다. 직접 조각한 오브제들은 강렬한 보색 대비로 눈을 사로잡고, 음식과 동물 등의 일상적인 소재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띤다. 1981년 미국의 대표 주간지 '라이프-사진연감'에 작품이 실리면서 현대 사진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녀는 사진이 '현실을 찍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녀의 작품엔 한 공간 안에 앙립 불가능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작품을 보는 우리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시 12월 6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장소 공근혜 갤러리, 문의 02-738-7776



High & Dry

박주영의 작품을 보면 잊고 있던 '수채화'라는 개념이 먼저 와 닿는다. 유화와 달리 붓이 한번 지나간 지면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지저분해지는 게 수채화다. 그러나 물기를 머금은 종이와 그것이 건조되면서 갖는 또 다른 모양새 등은 수채화의 매력이기도 하다. 작가는 종이 한장 한장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담담한 시선을 붓 지극과 물방울 흔적으로 담았다. 'High&Dry'는 '버림받게 되어, 고립되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시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장소 아이 엠 아트, 문의 02-3446-3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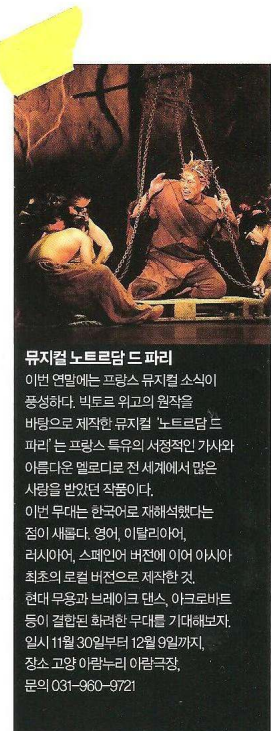
한홍일 개인전 '연화'

작약이라는 꽃을 선불 받으면 흔한 장미꽃과 안개꽃을 받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 든다. 생크림처럼 하얀색, 도톰한 부피감은 이 꽃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은 거리는 기대를 갖게 한다. 모호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패션 사진작가 한홍일이 작약을 응시했다. 그의 뷰 파인더 안에서 꽃은 그저 식물의 하나가 아닌, 작가와 교감을 나누는 대상이자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존재감을 갖는다. 일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장소 응 갤러리, 문의 02-546-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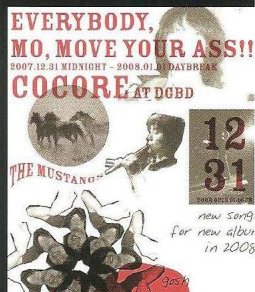
The Edge

태초의 판화는 유명한 예술 작품의 복제 수단이었고 기술이었다. 현대의 판화는 당당히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조각, 판화, 예칭, 실크스크린 등이 판화의 전통적인 기법이었다면 현대에는 사진이나 컴퓨터 등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채로운 작업 방법들이 등장했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활동하는 37명의 현대 판화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21세기 판화 예술의 현재를 보여준다. 일시 11월 21일부터 2008년 1월 9일까지,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02-418-1315 에디터 권은영



뮤지컬 '노트람 드 파리'

이번 연말에는 프랑스 뮤지컬 소식에 풍성하다.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 '노트람 드 파리'는 프랑스 특유의 서정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한국어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새롭다. 영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버전이 이어 아시아 최초의 로컬 버전으로 제작한 것. 현대 무용과 브레이크 댄스, 아크로바트 등이 결합된 화려한 무대를 기대해보자. 일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장소 고양 이람누리 이람극장, 문의 031-960-9721



코코어 연말 공연

2007년의 마지막 밤에는 뭘 해야 할까? 음악과 동화적인 분위기에 취해 한 해의 막을 때를 날려버리고 싶다면 클럽으로 향하자. 이우성이 이끄는 밴드 코코어가 흥대 클럽에서 연말 공연을 연다. 코드 맞는 사람들과 즐기는 사이키델릭 파티가 31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된다. 록 밴드 머스탱스도 게스트로 참여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시 12월 31일, 장소 흥대 DGBD, 문의 02-322-3792 글 김지선(프리랜서)